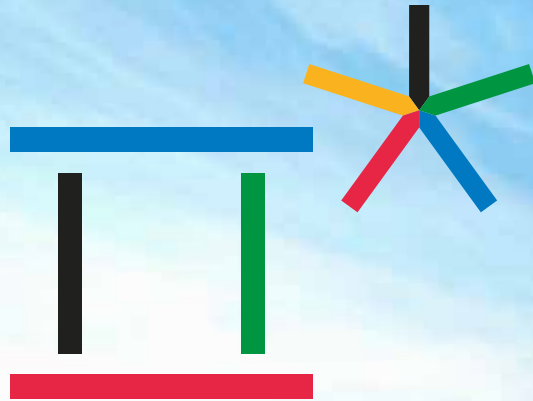




PyeongChang 2018™



2018 평창동계올림픽 카운트다운 지구촌 최대 겨울스포츠 제전 2월 9일 스타트

‘하나 된 열정(Passion Connected)’을 모토로 내건 2018 평창동계올림픽이 바짝 다가왔다. 2월 9일부터 25일까지 17일간 지구촌을 하나로 묶을 이번 제전은 1988년 서울 대회 이후 30년 만에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올림픽이다. 동계올림픽으로는 국내에서 처음 열리는 것이다. 평창에서 개·폐회식과 설상·썰매 종목이, 강릉에서 빙상 종목이, 그리고 정선에서는 알파인 스키 활강 경기가 펼쳐진다. 강원도로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킬 스포츠 축제를 제대로 즐기는 데 필요한 정보를 꼼꼼하게 모았다.

글 임동근 기자 · 사진 임귀주 기자



1

동계올림픽 최고의 순간을 즐겨라



평창동계올림픽 개막
이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12월 초순. 때마침 펼쳐진 새하
얀 설경을 배경으로 평창, 강릉, 정선
의 경기장들은 아름답고도 웅장한 자태를
뽐내고 있었다. 오는 2월이면 바로 이곳에서 각
국을 대표하는 선수들이 뜨겁게 경쟁하며 세계인을
열광시킬 것이다.

평창동계올림픽에 걸린 금메달 102개의 주인공은
12개 경기장에서 결정된다. 평창과 정선에 걸쳐 있
는 '평창 마운틴 클러스터'에 설상·썰매 종목 7개
경기장이, 강릉의 '강릉 코스탈 클러스터'에 빙상 5
개 경기장이 들어서 있다.

수려한 풍광 속의 설상·썰매 경기장

새하얀 눈밭에서 펼쳐지는 설상 경기의 중심지인
평창 마운틴 클러스터에는 개·폐회식장인 올림픽플
라자, 알펜시아 올림픽파크, 용평 알파인 경기장과
올림픽 슬라이딩 센터, 정선 알파인 경기장, 휘닉스
스노 경기장이 있다.

알펜시아 올림픽파크의 스키점프대 앞에 서자 동
계올림픽 국가대표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 '국가대
표'에서 느꼈던 짜릿함과 감동적인 순간이 고스란
히 전해지는 듯하다. 이곳에는 경기용 스키점프대
2기와 연습용 3기가 갖춰져 있다. 해발 857m에 들
어선 스키점프대는 높이 115m의 4층 구조물이다.
1층에 기계실이 있고, 2~3층에 경기용 스키점프대
출발지가 있다. 4층 전망대에서는 급경사의 스키점
프 도약대와 바이애슬론·크로스컨트리 경기장이 내
려다보인다. 멀리 풍력발전기가 휘도는 낭만적인 대
관령과 횡계 일대의 눈 덮인 풍경은 360도로 펼쳐
진다. 서쪽으로 뱀이 꿈틀거리는 듯 구불거리는 올
림픽 슬라이딩 센터와 용평 알파인 경기장 슬로프,

국제방송센터, 선수촌도 볼 수 있다.

바이애슬론과 크로스컨트리 경기장은 기존 골프장을 활용했다. 주
변 풍광이 아름다운 것은 물론이고 높낮이가 적당한 구불구불한 코
스까지 갖췄다. 크로스컨트리 센터에서는 수많은 선수가 힘겹게 비
탈을 오르내리며 구슬땀을 흘리고 있었다.

스켈레톤, 봅슬레이, 루지 경기가 열리는 올림픽 슬라이딩 센터는
스키점프 센터 서쪽 산의 가파른 사면을 따라 자리한다. 총 길이 1
천857m의 트랙에 커브 16개를 설치해 역동적인 경기를 할 수 있
게 했다.

스타트하우스를 출발해 구불구불한 터널을 따라 미끄러지면 최대원
심력(5G) 구간과 최고 속도(135km) 구간을 거쳐 결승선과 감속 구
간에 이르게 된다. 추가로 마련한 길이 161m의 연습용 트랙을 더하
면 트랙 길이는 꼭 2천18m가 된다.

개·폐회식장인 올림픽플라자는 횡계리에 있다. 24만㎡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7층의 5각형 모양으로 건축됐다. 지하 2층에는 올림픽
홍보관, 지상 1층에는 메달 플라자가 있다. 동계올림픽에서는 경기
장에서 메달을 수여하지 않고 경기 이후 올림픽플라자에서 시상식
을 연다.

피겨·쇼트트랙 스타들 모일 '코스탈 클러스터'

평창에서 대관령을 넘어 동쪽으로 이동하면 강릉 경포호 인근에 '강
릉 코스탈 클러스터'가 자리하고 있다. 피겨 스케이팅과 쇼트트랙이
열리는 아이스 아레나, 하키 센터, 스피드 스케이팅 경기장, 컬링 센
터가 이곳에 모여 있다.

'오발'(타원형)이라 불리는 스피드 스케이팅 경기장은 은빛의 육중
한 외관을 드러내고 있었다. 연면적 3만7천846㎡의 경기장은 우리
나라에서 기둥 없는 건축물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크다고 한다.
400m의 빙상 트랙이 치열하게 속도 경쟁을 벌일 선수들의 등장을
기다리고 있다. 수용인원 8천 명의 경기장은 좌석을 엇갈리게 배치
해 어느 곳에 앉아도 경기를 제대로 관전할 수 있는 것
이 특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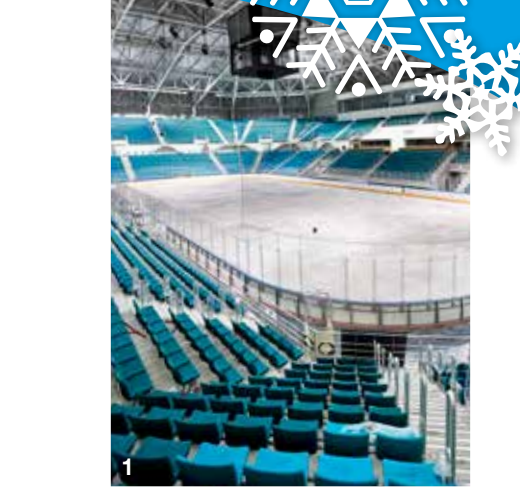
스피드 스케이팅 경기장 바로 왼쪽에는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의 아이스 아레나가 있다.

우리나라의 강세 종목인 쇼트트랙과 '피겨
여왕' 김연아로 인해 국민이 가장 사랑
하는 종목이 된 피겨 스케이팅 경기가
바로 이곳에서 진행된다. 1만2천
명을 수용하는 아이스 아레나에



1 평창 알펜시아 올림픽파크 스키점프대 2 개·폐회식과 시상식이 열릴 오각형의
올림픽플라자 3 스켈레톤, 봅슬레이, 루지 경기가 진행될 올림픽 슬라이딩 센터
4 알펜시아 올림픽파크의 크로스컨트리 센터





1 아이스하키센터 2 여자 아이스하키 경기가 펼쳐질 관동하키센터
3 피겨 스케이팅과 쇼트트랙 경기장인 아이스 아레나 4 지붕에 올림파크가
새겨진 스피드 스케이팅 경기장 5 스피드 스케이팅 경기장 내부
6 정선 알파인 경기장

서는 오전에 피겨 스케이팅, 오후에 쇼트트랙이 펼쳐진다. 이곳은 관람객이 쾌적하게 경기를 즐길 수 있게 관람석 온도 15도, 습도 40%를 유지하는 공조시스템을 구축했다.

스피드 스케이팅 경기장 남쪽에는 '동계올림픽의 꽃'이라 불리는 아이스하키가 펼쳐지는 강릉하키센터가 들어서 있다. 1만 명을 수용하는 경기장은 아이스링크와 관람석 사이 거리가 1.6m에 불과하다. 선수들의 격렬한 보디체크와 거친 숨소리를 들으며 경기를 관람할 수 있을 정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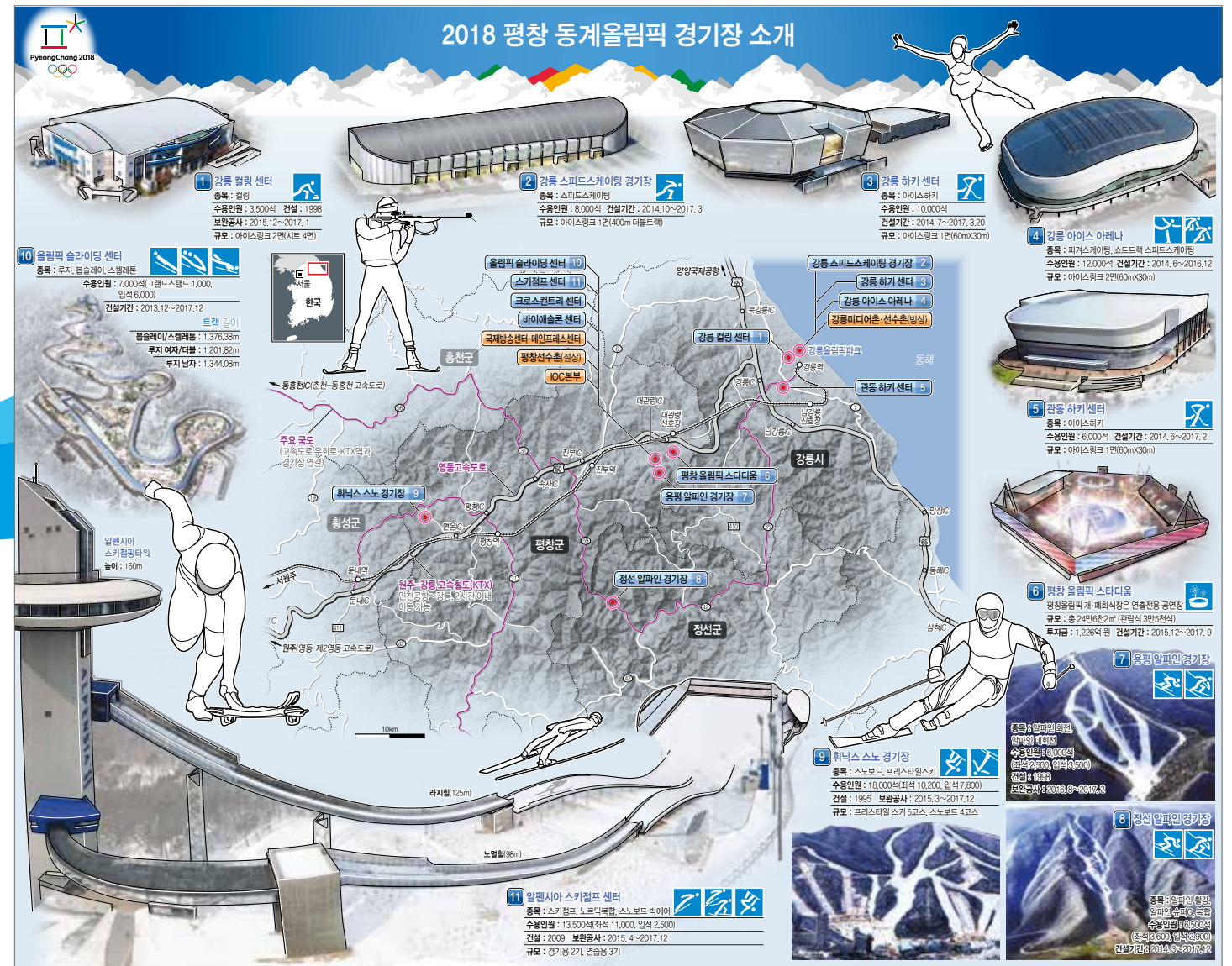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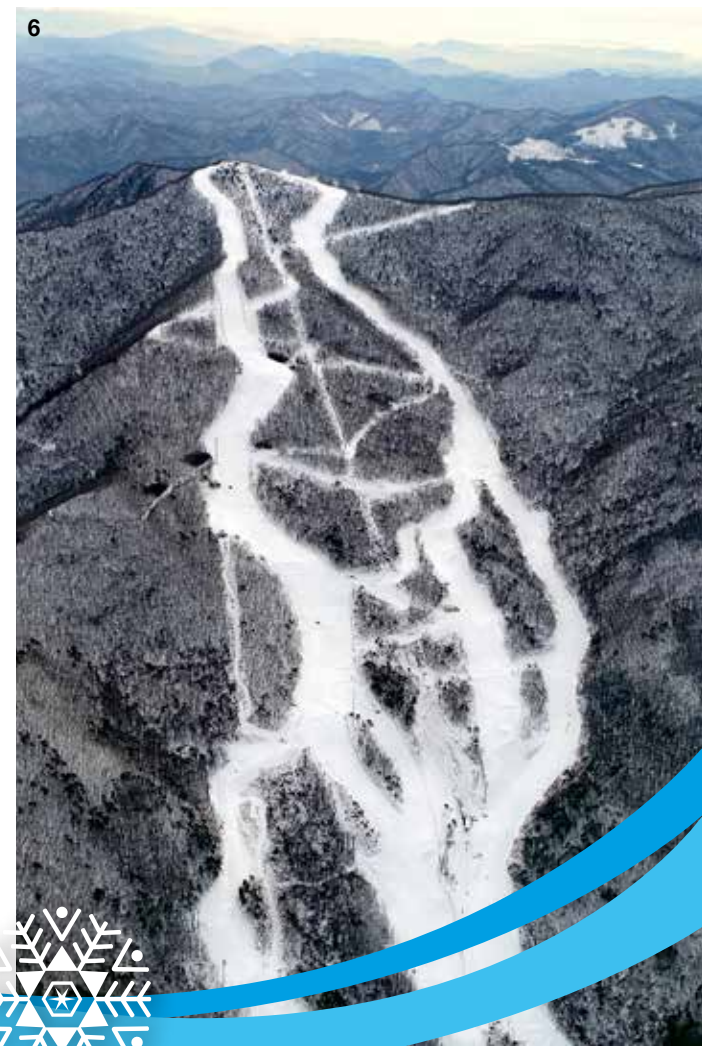
'빙판 위의 체스'로 불리는 컬링 선수들이 뛸 강릉컬링센터와 아이스하키 여자부 경기가 열리는 관동하키센터는 인근에 있다. 강릉컬링센터는 강릉 실내종합경기장을 컬링에 맞게 보완해 사용한다.

북동쪽 경포호 방면으로 5분 거리에 평창 동계올림픽 홍보체험관이 있다. 오륜마크를 상징하는 다섯 가지 색상의 컨테이너를 평창 올림픽 엠블럼과 같은 눈꽃 모양으로 배치한 공간이다. 올림픽과 대회 종목에 대해 배우고 이해할 수 있는 곳이다.

4D 체험관에서 3D 안경을 쓰고 자리에 앉으면 스키점프, 봅슬레이, 스노보드 등 동계 스포츠 경기를 실제처럼 체험할 수 있다. 가상현실(VR)로 스키점프, 바이애슬론, 스피드 스케이팅도 체험할 수 있다. 이용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월요일 휴무)로 무료다.

생소한 종목 많은 동계올림픽

동계올림픽은 생소한 종목이 많다. 제대로 즐기려면 종목의 진행방식과 규칙을 알아야 한다. 크게 알파인 스키, 크로스컨트리 스키, 프리스타일 스키, 노르딕 복합,



바이애슬론, 스키점프, 스노보드, 봅슬레이, 루지, 스켈레톤, 컬링, 피겨 스케이팅, 쇼트트랙 스피드 스케이팅, 스피드 스케이팅, 아이스하키 등 15개 종목이 펼쳐진다. 우리나라가 강세인 쇼트트랙, 스피드 스케이팅, 피겨 스케이팅 정도는 익숙하지만 스켈레톤, 루지, 노르딕 복합, 바이애슬론 등 생소한 종목도 많다. 잘 알려지지 않은 종목을 중심으로 규칙과 관전법을 알아본다.

»알파인 스카 프리스타일 스키 I 알파인 스키는 슬로프에 설치된 깃발 사이를 지그재그로 돌며 빠르게 내려가는 경기다. 스피드(속도) 종목과 테크니컬(기술) 종목이 있다. 스피드 종목에는 활강과 슈퍼대회전, 테크니컬 종목에는 대회전과 회전 있다. 활강과 회전을 합한 알파인 복합도 있다. 가장 빠른 종목인 활강은 15~30도에 달하는 경사면을 90~140km 속도로 미끄러진다. 알파인 복합은 활강, 회전 순서로 경기를 진행한 후 기록을 합산해 순위를 정한다. 프리스타일 스키는 스키에 예술적인 요소를 더한 종목이다. 슬로프를 활강하며 공중에서 점프, 회전 등을 선보인다.

»크로스컨트리 스카 노르딕복합·바이애슬론(Biathlon) I '설원의 마라톤'으로 불리는 크로스컨트리 스키는 오르막, 내리막, 평지로 이뤄진 길이 3~12km 코스를 달리는 경기로, 완주 시간으로 순위를 정한다. 노르딕복합과 바이애슬론은 크로스컨트리 스키와 다른 종목이 합쳐진 종목이다. 노르딕복합은 크로스컨트리 스키와 스키점프를 함께 치르는 경기다. 스키점프 점수가 높은 선수부터 차례대로 크로스컨트리 스키 경기에서 먼저 출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높은 기술과 담대함, 강한 체력이 필요하다. 남자 부문만 치러진다. 바이애슬론은 크로스컨트리 스키와 사격이 결합한 종목이다. 선수들은 무게 3.5kg 이상의 소총을 맨 채로 스키를 타고 일정 거리를 주행하며, 정해진 곳에서 사격한다. 사격은 복사(엎드려 쏘)와 입사(서서 쏘)가 있다. 스키 주행 시간과 사격의 정확성에 의해 순위가 가려진다.

»스키점프 노멀힐·라지힐 I 시속 90km 속도로 기울기 35~37도 경사면을 따라 미끄러지다가 도약해 최대한 비행하고 착지 구역에 안정적인



1 썰매에 등을 대고 트랙을 질주하는 루지 2 크로스컨트리 스키와 사격이 결합한 바이애슬론 3 쇼트트랙 러시아 대표인 빅토르 안(안현수)
4 올림픽 3회 연속 금메달에 도전하는 '빙속여제' 이상화 5 남자 봅슬레이 2인승의 원윤중·서영우 6, 7, 8 평창동계올림픽 홍보체험관

로 착지하는 종목이다. 비행 거리, 착지 동작, 활강 스타일에 따라 점수를 준다. 노말힐 경기는 105m 힐에서, 라지힐 경기는 140m 힐에서 열린다. 예선 통과한 50명을 대상으로 1차 라운드를 진행하고 최종 30명이 결선을 치른다. 두 번 점프해 총점이 가장 높은 선수가 우승을 차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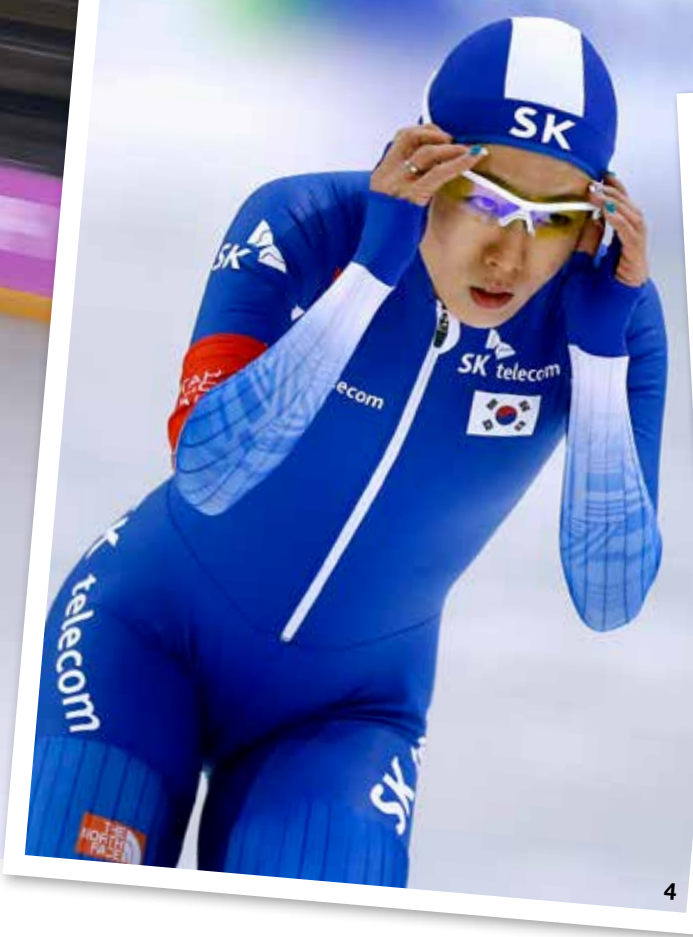
≫ 스킨레톤(Skeleton)·루지(Luge)·봅슬레이(Bobsleigh) | 스킨레톤은 머리를 정면으로 향해 썰매에 엮드린 자세로 1천200~1천300m 트랙을 타며, 루지는 썰매에 등을 대고 1천~1천500m 트랙을 질주하는 경기이다. '빙판 위의 F1'이라 불리는 봅슬레이는 브레이크와 핸들이 장착된 썰매로 1천200~1천300m 트랙을 활주하는 경기로 남자 4인승·2인승과 여자 2인승 종목이 있다. 세 종목 모두 최대 시속 130~150km의 고속 주행 경기다. 특히 스킨레톤과 봅슬레이는 무거울수록 유리하기 때문에 중량 제한이 엄격하다. 스킨레톤과 봅슬레이는 선수 체중과 썰매 무게를 합한 전체 무게를 제한한다. 스킨레톤 최대 중량은 남자 115kg, 여자 92kg이다. 봅슬레이는 오픈 4인승이 630kg, 남자 2인승 390kg, 여자 2인승 350kg이다. 루지는 선수 체중 제한이 없고, 썰매 무게만 1인승 23kg, 2인승 27kg 이내로 제한한다.

≫ 컬링(Curling) | 4명씩으로 구성된 두 팀이 빙판에서 무게 약 20kg의 둥글고 납작한 돌(스톤)을 미끄러뜨려 둥근 과녁처럼 생긴 하우스 중앙

에 가장 가깝게 넣어 득점을 겨루는 경기다. 스톤의 속도와 방향을 조절하기 위해 빗자루처럼 생긴 브룸(Broom)으로 빙판을 닦아야 한다.

≫ 스피드 스케이팅 팀 추월·매스스타트 | 팀 추월은 각각 세 명으로 구성된 두 팀이 트랙 정반대 편에서 출발해 각 팀에서 마지막에 결승선을 통과하는 선수의 기록으로 승자를 결정한다. 남자는 8바퀴, 여자는 6바퀴를 주행한다. 매스스타트는 여러 명의 선수가 레인 없이 400m 트랙을 16바퀴 돌며 경쟁하는 경기다.

≫ 스노보드 평행대회전·빅에어 | 평행대회전에서 선수들은 나란히 슬로프를 활주한다. 예선 라운드 후 16인 토너먼트 형식으로 우승자가 결정될 때까지 2명의 선수가 2개의 코스를 활주한다. 빅에어에서 선수들은 눈으로 만든 언덕 혹은 임시 구조물의 점프대를 도약한다. 점프에서 최대한의 높이와 거리를 달성하고 안정적으로 착지해야 높은 점수를 얻는다.



이 경기와 선수에 주목하라

이번 대회에서 우리나라 목표는 금메달 8개, 은메달 4개, 동메달 8개 등 총 20개 메달을 획득해 종합 4위에 오르는 것이다. 목표대로 되면 역대 동계올림픽 최고 성적을 거둔 2010 밴쿠버올림픽의 5위(금 6, 은 6, 동 2)를 넘어서게 된다.

최민정과 심석희가 이끄는 여자 쇼트트랙은 전 종목 석권을 노리고, 남자 선수들도 금메달을 기대하고 있다. 총 8개 금메달 중 절반 이상이 목표다. '빙속여제' 이상화는 올림픽 3회 연속 금메달에 도전한다. 올림픽에서 첫 정식 종목으로 선보이는 매스스타트에서는 이승훈과 김보름이 동반 우승을 노린다. 스킨레톤의 윤성빈과 남자 봅슬레이 2인승의 원윤중·서영우도 금메달을 기대하고 있다.

강원도 사북고등학교 출신으로 고령지 배추밭을 개량한 눈썰매장을 주로 이용한 훈련을 받아 '배추밭 소년'으로 불리는 스노보드 평행대회전 대표 이상호, 소치올림픽에서 돌풍을 일으킨 컬링 대표팀에도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귀화선수들의 경기도 주목된다. 한국 선수단 130여 명 중 19명이 귀화선수다. 아이스하키 11명을 비롯해 바이애슬론 4명, 스키 2명, 피겨 1명, 루지 1명 등이다. 특히 노르웨이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크로스컨트리 스키 대표 김마그너스가 눈길을 끌 것으로 보인다.



우리 선수와 금메달을 놓고 박빙의 대결을 펼칠 외국 선수가 많다. 올림픽에서 이상화와 세 번째로 대결하는 일본의 고다이라 나오는 2016년 국제대회부터 이상화를 앞서고 있다. 이상화가 한때 1초까지 벌어졌던 격차를 최근 0.2초까지 줄여 명승부가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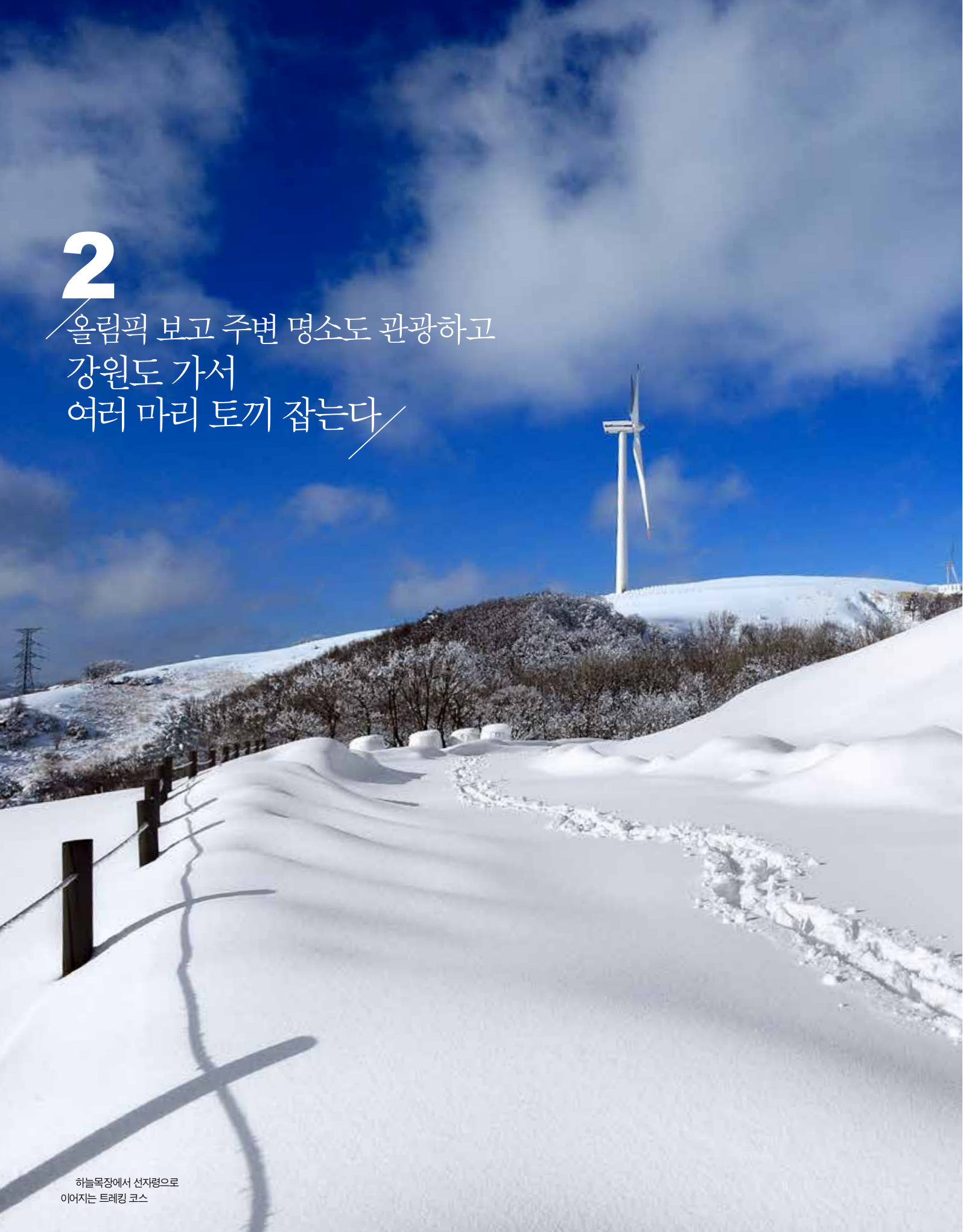
쇼트트랙에서는 남자부의 빅토르 안(안현수·러시아), 여자부의 엘리스 크리스티(영국)가 위협적이다. 이들의 활약 여부에 따라 우리나라 선수의 메달 빛깔과 순위가 바뀔 수 있다. 봅슬레이 2인승에서는 프란체스코 프리드리히가 이끄는 독일 팀이 가장 큰 적수다. 반복 훈련을 통해 트랙을 완벽하게 숙지할 수 있는 썰매 종목이 홈 팀에 아무리 유리하다고 해도 원윤중·서영우가 금메달을 따려면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다.

스켈레톤 선수 윤성빈의 최대 강적으로는 '스켈레톤 황제' '스켈레톤의 우사인 볼트'로 불리는 라트비아의 마르틴스 두쿠르스가 있다. 그는 자타공인 세계 최고지만 지금까지 올림픽에서는 금메달을 하나도 따지 못해 '무관의 제왕'으로 불린다.

이밖에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와의 열애로 전 세계인의 관심을 끈 '스키 여제' 린지 본(미국), 피겨 스케이팅의 강자인 일본의 하뉴 유즈루, 김연아가 떠난 피겨계에서 여왕 자리를 노리는 러시아의 예브게니야 메드베데바, 재미교포 '스노보드 천재' 클로이 김 등에게 스포트라이트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2

올림픽 보고 주변 명소도 관광하고
강원도 가서
여러 마리 토끼 잡는다



하늘목장에서 선자령으로
이어지는 트레킹 코스

평창



동계올림픽이 열리는 평창, 강릉, 정선은 우리나라 최고의 사계절 여행지이다. 동계올림픽을 보러 들렀다가 찾아보면 좋을 주변의 명소가 수도룩하다. 강원도가 추천하는 '올림픽 테마로드 10선'을 따라 여행해 보는 것도 좋을 듯하다.

평창, 눈앞에 펼쳐지는 순백의 자연

강원도 평창의 여행 주제는 '산'이다. 대관령 양떼목장과 선자령, 오대산 국립공원이 대표 명소다.

겨울을 맞은 대관령의 목장은 들판에 양떼나 소가 없지만 풍경이 그야말로 환상적이다. 낭만적인 순백의 설국(雪國)이 시야를 가득 채운다. 양떼목장에서는 둥그렇게 조성된 1.2km의 산책로를 가닐며 새하얀 눈에 발자국을 남길 수 있다. 언덕 위에 외롭게 서 있는 허름한 오두막은 사진 촬영 포인트다. 양떼에게 건초를 먹이는 체험은 축사에서 할 수 있다.

대관령 하늘목장에서 트랙터 마차를 타고 해발 1천m의 하늘마루 전망대에 올라 설경과 알펜시아 스키점프대를 볼 수 있다. 이곳에서 왕복 1시간이면 선자령 정상도

다녀올 수 있다. 삼양목장 동해전망대에서는 동해와 강릉이 발아래 펼쳐진다.

해발 1천157m의 선자령 트레킹도 도전해 볼 만하다. 선자령을 향해 오르는 동안 거대한 풍력발전기와 백두대간의 수려한 능선을 감상하고 정상에서는 시리도록 푸른 동해를 마주할 수 있다. 총 길이 12km의 '선자령 풍차길'은 4시간 정도 걸린다. 경사가 완만하지만 능선과 정상에는 강풍이 분다. 겨울에는 저체온증 방지를 위해 반드시 두꺼운 외투를 준비해야 한다.

해발 1천563m의 비로봉을 중심으로 호령봉, 상왕봉, 동대



1, 2 흰 눈으로 덮인 대관령
하늘목장 3, 4 봉평에 있는
이효석문학관





1 오대산 월정사의 팔각구층석탑
2 낭만적인 풍경의 월정사 전나무 숲길

산, 두로봉이 둘러선 오대산도 빼놓을 수 없다.

최고의 매력 포인트는 '천 년의 숲길'이라 불리는 월정사 전나무 숲길. 월정사 일주문에서 금강교까지 이어지는 숲길에는 하늘을 향해 치솟은 전나무 1천 그루가 도열해 있다. 전나무에 하얀 눈이 소복하게 쌓인 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숲길을 걸으면 사랑이 저절로 깊어질지 모른다.

대웅전 앞마당에 아름다운 자태로 서 있는 팔각구층석탑(국보 제48호)과 석조보살좌상(보물 제139호)을 보유한 고즈넉한 풍경의 월정사를 둘러보는 것도 좋다.

월정사에서 상원사까지 이어지는 9km의 '오대산 선재길'도 관광객들을 유혹한다. 인기 드라마 '도깨비' 촬영지로 유명한 낭만적인 길이다. 상원사는 자장율사가 월정사와 함께 창건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통일신라 시대의 동종(국보 제36호)과 목조문수동자좌상(국보 제221호)을 만날 수 있다.

평창은 한국 현대 단편문학의 대표 작가인 가산 이효석이 태어나고 자란 곳이다. 그의 소설 '메밀꽃 필 무렵'의 무대가 되기도 했다. 봉평에 가면 맑은 눈에 동그란 안경을 걸치고 중절모를 쓴 멋쟁이 소설가를 만날 수 있다.

봉평의 너른 들판이 내려다보이는 곳에 자리한 이효석문학관은 사진과 원고, 저서를 통해 이효석의 삶과 문학 세계를 보여주고 봉평 장터를 재현해 놓았다. 또 메밀의 종류와 효능, 음식에 관한 것을 알려준다. 집필 중인 가산을 묘사한 동상 뒤편 전망대에서 내려다보면 들판 한쪽에 '하트' 모양 길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문학관 인근으로 이효석 문학비, '메밀꽃 필 무렵'에 등장하는 물레방앗간을 찾아볼 수 있다. 봉평에는 복원된 이효석 생가, '메밀꽃 필 무렵' 속 주요 대목이 새겨진 비석, 소설 속 충주집과 장터가 있는 문학의 숲도 있다.

올림픽 테마로드

평창동강민물고기생태관 ▶ 백룡동굴 ▶ 평창바위공원
▶ 호석문화마을 ▶ 허브나라농원 ▶ 월정사 ▶ 상원사 ▶ 대관령 양떼목장



강릉, 역사와 낭만이 함께하다

강릉은 역사, 자연, 낭만이 잘 버무려진 여행지다. 우선 빙상 경기가 펼쳐지는 강릉 코스타ل 클러스터 북쪽에는 경포호가 있다. 길이 4km의 호반을 따라 경포대, 해운정, 경호정, 금란정, 상영정 등 조용하게 호수 전경을 감상할 수 있는 정자가 서 있다. 경포대 서남쪽에는 선교장이 있다. 이곳은 세종대왕의 형인 효령대군의 11대손 무경 이내번(1692~1781)이 충주에서 강릉으로 이주한 후 1703년부터 지은 집으로, 원형이 잘 보존된 조선 후기 최고의 저택으로 꼽힌다.

인근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소설 '금오신화'를 지은 매월당 김시습의 기념관이 있다. 조금 더 남쪽에서는 신사임당과 율곡 이이를 만날 수 있는 오죽헌이 관광객들을 맞는다. 경포호에서 해안도로를 따라 남쪽으로 자동차로 10분 정도를 이동하면 커피로 유명한 안목해변이다. 에스프레소 기계로 추출한 커피는 물론 핸드드립한 커피까지 다양한 맛과 향기의 커피를 내는 전문점 20여 곳이 집결해 있다. 해변에 들어서는 순간 구수한 커피 향이 후각을 파고든다. 따스한 커피 한 잔을 마신 후 해변을 거니는 낭만적인 순간을 만끽할 수 있다. 안목해변에서 남쪽으로 30분 거리에는 국내 최고 일출 명소인 정동진이 있다.

경포호에서 북쪽으로 20분가량 가면 드라마 '도깨비'에서 도깨비와 지은택이 만난 방사제(防砂堤)가 있는 영진해변이 나온다. 드라마가 방영된 지 1년이 다 됐지만 여전히 연인과 부부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조금 더 북쪽에 있는 주문진수산시장을 방문해 겨울철 별미인 도루묵과 양미리를 맛보는 것도 좋겠다.

올림픽 테마로드

선교장 ▶ 오죽헌 ▶ 경포대 ▶ 참소리축음기·에디슨과학박물관 ▶ 갈골현과체험전시장 ▶ 강릉단오문화관 ▶ 통일공원 ▶ 정동진 시간박물관 ▶ 커피커피 커피박물관 ▶ 노추산 모정탑

3 오죽헌의 설경 4 드라마 '도깨비' 촬영지인 강릉 영진해변 5 일출 명소인 정동진





정선



1 정선아리랑시장 2 화암동굴 3 병방산 스카이워크

정선, 즐길거리 풍부한 아리랑의 고장

정선을 대표하는 단어는 '아리랑'이다. 이곳에는 아리랑의 발상지인 아우라지, 아리랑의 역사와 노래, 생활 속 아리랑에 대해 배우고 이해할 수 있는 아리랑센터의 아리랑박물관이 있다. 끝저리가 5, 7인 5일장날 아리랑센터 공연장에서는 정선 아리랑을 극 형태로 즐길 수 있는 정선아리랑극이 진행된다. 정선아리랑시장에서 각종 산나물과 약초를 사고 곤드레나물 밥이나 콧등치기국수, 수수부꾸미를 맛보면 금상첨화다.

정선을 남쪽 병방산(해발 861m)에서는 스카이워크와 집와이어를 체험할 수 있다. 절벽에 U자 형태로 돌출한 스카이워크에서는 공중에 떠 있는 듯한 스릴을 만끽하며 동강과 한반도 지형을 조망할 수 있다. 집와이어를 이용하면 광하리 생태 체험장까지 1.1km를 시속 70km 속도로 미끄러지며 동강의 비경을 눈에 담을 수 있다.

정선읍에서 남동쪽으로 30분 정도 가면 '화암8경'이란 경승지가 나타난다. 화암약수, 화암동굴, 거북바위, 용마소, 화표주, 소금강, 물운대, 광대곡 등 아름다운 자연 풍경을 품은 구간이다. 화암동굴은 연중 온도가 10~14도를 유지해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에 춥지 않아 돌아보기 좋다. 1922~1945년 금을 캐던 천포광산의 옛 모습을 볼 수 있고, 대형 석순과 석주가 있는 신비로운 천연鍾유굴도 감상할 수 있다.

고한읍 함백산 자락의 삼탄아트마인은 최근 가장 인기가 높

은 명소. 2001년 폐광된 삼척탄차 정암광업소의 시설을 그대로 활용한 문화·예술 공간이다. 갤러리와 역사관, 스튜디오, 예술체험관, 식당 등을 갖췄다. 드라마 '태양의 후예'에서 지진으로 붕괴한 발전소로 등장하기도 했다.



2



올림픽 테마로드

정선5일장 ▶아리랑촌 ▶스카이워크와 집와이어 ▶동강레프팅 ▶정선레일바이크 ▶가리왕산 자연휴양림 ▶화암동굴과 화암약수 ▶삼탄아트마인 ▶정암사



3



4



5



6

오가며 둘러볼 주변 명소 널렸다

올림픽 개최지를 오가는 길에 방문할 곳도 많다. 수도권에서 출발한다면 원주와 횡성, 그 밖의 지역에서 진입한다면 영월을 지나게 된다. 특히 원주와 횡성은 KTX가 멈추고 개최까지 자동차로 멀지 않아 올림픽 기간 중 숙소로 이용하면 좋다.

원주를 대표하는 명소는 치악산과 구룡사. 치악산은 주봉인 비로봉을 중심으로 향로봉, 대화산, 삼봉 등 1천m가 넘는 봉우리가 남북으로 웅장하게 펼쳐져 있다. 특히 겨울철 상고대는 눈부시게 아름답다. 세찬 바람이라도 불어오면 은빛 가루를 뿌려놓은 듯 반짝거리며 환날린다.

치악산 자락 구룡사는 필수 방문지. 매표소에서 구룡사까지 1km의 탐방로는 계곡이 아름답고 경사도 완만해 가볍게 산책을 즐기기에 좋다. 구룡사 매표소 인근에는 더덕불고기, 산채 비빔밥 등 맛있는 음식을 내는 식당도 많다.

원주 시내 원주중앙시장 2층의 미로예술시장은 젊은이들이 카페와 공방, 갤러리를 운영하는 곳이다. 중앙시장 1층에는 한우 특수 부위를 숯불에 구워 먹는 소고기골목, 다양한 만두

요리를 맛볼 수 있는 만두골목이 있다. 조선 시대 500년간 관찰사가 강원도의 정무를 보던 강원감영도 둘러볼 만하다.

횡성에는 국립수목원이 발행한 '가보고 싶은 정원 100'에 수록된 미술관 자작나무숲이 있다. 하얀 수피의 자작나무가 서 있는 공간에는 전시장 두 곳과 직접 로스팅한 커피를 즐기고 아트상품을 살 수 있는 스튜디오 갤러리, 일반 관람객도 머물 수 있는 게스트하우스가 있다. 예쁘게 꾸며진 정원을 걷다가 미술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특별한 공간이다. 4월까지 제1전시장에서는 평창동계올림픽 성공 염원을 담아 미술관 자작나무숲의 소장품을 처음으로 한 자리에 모은 소장품전이 개최된다.

국내 4번째이자 강원도 최초의 성당인 풍수원성당도 고즈넉한 풍경을 보고 싶은 이들이라면 둘러볼 만하다.

영월에는 비운의 단종에 관한 이야기가 남겨진 장릉과 청령포, 별마로천문대가 있다. 이 외에도 동강사전박물관, 강원도탄광문화촌, 라디오스타박물관, 난고김삿갓문학관 등 찾아볼 가치가 많은 박물관이 널려 있다.



7

4 원주 시내에 있는 강원감영
5, 6 원주중앙시장과 2층에 있는 미로예술시장 7 횡성 풍수원성당
8 미술관 자작나무숲



8

3 입맛 사로잡는 강원도 음식들



곤드레나물밥



옹심이칼국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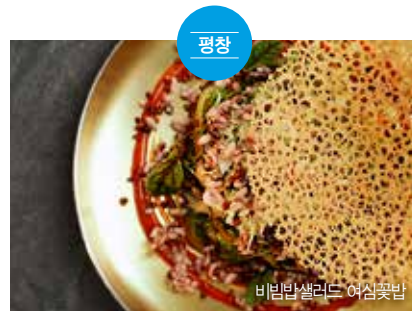
아무리 볼거리가 많아도 먹거리가 별로라면 여행의 만족도는 낮아지기 마련이다. 외지인들의 입맛을 사로잡는 강원도 음식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평창은 메밀과 황태를 이용한 음식과 한우, 산채를 '대표 선수'로 내세운다. 구수하고 담백한 메밀 요리는 소설 '메밀꽃 필 무렵'의 무대인 봉평이 가장 유명하다. 100% 국산 메밀만 사용한 막국수와 전병을 맛볼 수 있다. 메밀짬뽕, 메밀닭강정, 메밀쌈아토폻도 있다. 메밀은 필수 아미노산과 비타민이 풍부해 비만 예방과 피부 미용에 도움을 주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건강식품이다. 겨우내 얼었다 녹기를 반복하며 포슬포슬하게 변신한 황태는 국밥, 칼국수, 구이로 맛볼 수 있다. 황태국밥은 알코올 분해효소가 많아 숙취 해소에 효과가 좋다고 한다.

강릉에서는 초당두부, 감자옹심이, 물회, 해물

이 유명하다. 식당 20여 곳이 성업 중인 초당두부마을은 경포호 남쪽에 있다. 초당두부는 강원도에서 생산되는 콩과 비릿물을 사용해 만든다. 순두부, 두부전골, 모듬두부 등이 대표 메뉴다. 순두부를 응용한 순두부짬뽕, 얼큰순두부, 해물순두부도 맛볼 수 있다.

정선을 대표하는 음식으로는 황기닭백숙, 곤드레나물밥, 콧등치기국수가 있다. 황기는 정선의 대표적인 약용작물로, 닭기름을 분해해 국물 맛을 담백하고 시원하게 해준다. 정선에 풍성하게 자생하는 곤드레는 식이섬유, 비타민, 칼슘, 단백질이 풍부하고 성인병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격은 6천~7천원으로 저렴한 편이다.



평창

비빔밥샐러드 여성꽃밥



감자고구마 굴리미



메밀더덕롤까스

강원도는 평창동계올림픽을 겨냥해 '2018 강원특선음식 30선'을 선보였다. 평창, 강릉, 정선 등 지역의 식재료와 전통음식으로 국내 유명 요리사들이 참여해 개발했다. 이들 음식은 평창·강릉·정선의 127개 식당에서 맛볼 수 있다. 평창에서는 영월 출신 요리사 에드워드 권이 한우불고기, 메밀파스타, 메밀더덕롤까스, 황태칼국수, 송어덮밥, 송어만두, 비빔밥샐러드, 사과파이, 굴리미(감자를 이용한 주전부리), 초코감자를 개발했다.

강릉에서는 김호석 가톨릭관동대 교수와 최현석 요리사가 삼계옹심이, 짬뽕옹심이(맑게 끓여낸 짬뽕(비단조개) 국물에 건고추를 넣은 음식), 크림감자옹심이, 초당두부밥상, 두부삼합

새로 개발한 강원특선음식 30선



정선

곤드레버섯불고기



채만두

(모두부, 돼지고기수육, 묵은지로 구성한 메뉴), 두부샐러드, 바다해물밥상(돌솥밥에 해물 강된장과 반찬을 곁들인 메뉴), 삼선비빔밥(해삼, 전복 등 해산물을 향신채에 볶고 구운 차돌박이와 볶은 채소에 흥시를 더해 고추장과 향신간장소스를 비벼 만든 밥), 해물뽕배기, 마파두부탕수 등을 선보였다.

정선에서는 영화 '식객'의 요리감독을 맡았던 김수진 요리사가 곤드레비빔밥, 곤드레버섯불고기, 더덕보쌈, 콧등치기국수, 감자봉생이밥(포슬포슬한 상태로 삶은 감자에 완두콩을 곁들인 메뉴), 황기닭백숙, 황기족발, 느른국(메



강릉

삼계옹심이



초당두부밥상



삼선비빔밥

밀국수 끓인 물을 그대로 육수로 활용한 음식), 채만두(갯김치 등 채소로 속을 채운 만두), 옥수수푸딩을 내놨다.

한편 강원도는 평창 동계올림픽이 진행되는 기간이 포함된 2월 3~25일, 패럴림픽 기간인 3월 8~18일에 평창 올림픽플라자 인근에서 '케이푸드 플라자'를 운영한다. 약 2천400㎡ 면적에 대형 돔텐트로 설치되는데 600여 명이 동시에 이용할 수 있다. 이곳에서는 황태칼국수, 순메밀국수, 춘천닭갈비, 뽕잎황태밥, 오징어순대, 화도밥 등 강원도의 다양한 음식을 내놓는다. ㉠

한눈으로 살펴보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



경기 일정

평창동계올림픽 개최식은 2월 9일이지만 컬링과 스키 점프는 하루 앞서 시작한다. 1호 금메달은 2월 10일 오후 4시 15분 시작되는 크로스컨트리 스키 여자 15km 스키애슬론에서, 마지막 102번째 금메달은 25일 열리는 여자 30km 단체 출발에서 나온다.

우리나라가 강세인 쇼트트랙은 10일 남자 1,500m 결승을 시작으로 13일 여자 500m, 17일 여자 1,500m와 남자 1,000m, 20일 여자 3,000m 계주, 22일 남자 500m·여자 1,000m, 남자 5,000m 계주 결승이 이어진다. 스피드 스케이팅은 거의 매일 결승전이 진행된다. 이승훈·김보름 선수가 출전하는 매스스타트 결승은 24일에 열린다. 피겨는 2월 9일 팀이벤트(단체전)로 시작해 2월 12, 15, 17, 20, 23일 금메달이 하나씩 나온다. 피겨 갈라쇼는 2월 25일 오전 진행된다. 썰매 종목은 루지, 스켈레톤, 봅슬레이 순으로 경기가 치러진다. 윤성빈이 금메달을 노리는 스켈레톤 3·4차 주행은 2월 16일 치러지고, 원윤종·서영우가 출전하는 남자 봅슬레이 2인승 3·4차 주행은 2월 19일 열린다. '배추밭 소년' 이상호의 스노보드 평행대회전 결승은 2월 24일 진행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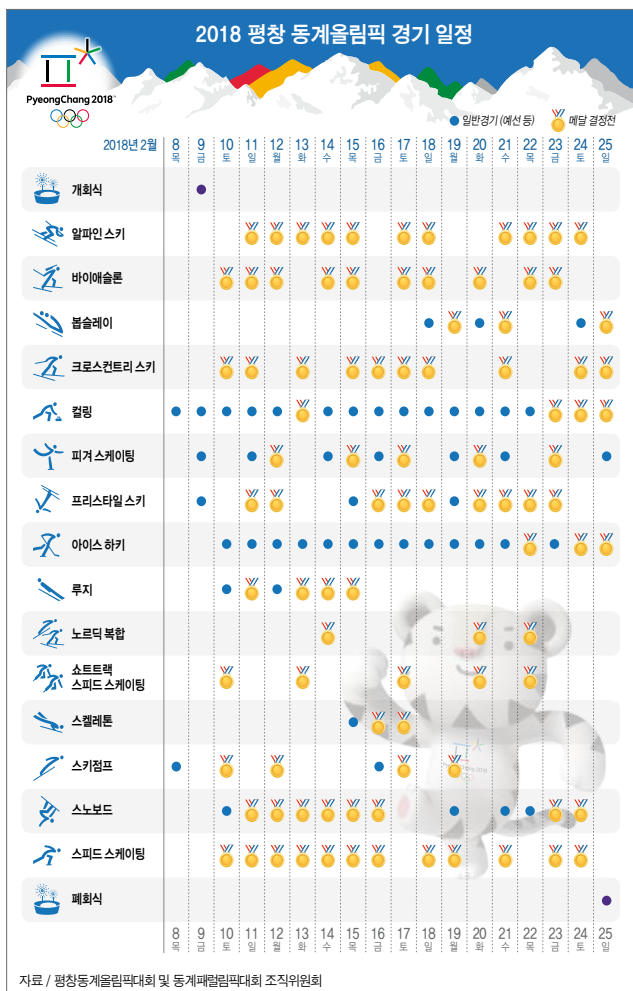


입장권

티켓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살 수 있다. 온라인 일반 판매는 평창올림픽 입장권 홈페이지(tickets.pyeongchang2018.com)에서 진행된다. 홈페이지 회원 가입 후 1인당 50장까지 구매할 수 있다. 오프라인 판매는 서울시청, 강릉시청, 강원도청, 인천공항, 김포공항, KTX 19개 역사에서 이뤄진다. 대회 기간에는 경기장 부근에서 구매할 수 있다. 오프라인 구매는 비자카드와 원화 현금으로만 결제할 수 있다. 티켓은 직접 프린트하거나 휴대전화로 전송받는다. 현장에서 종이 입장권을 발급받을 수 있다. 경기 당일 티켓을 소지하면 관중 셔틀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평창 올림픽플라자와 강릉 올림픽파크 무료 입장도 허용된다. ☎ 1544-4226

입장권 가격

구분	종목	좌석 등급 / 가격			
		A	B	C	D
개회식		150만원	80만원	60만원	22만원
폐회식		95만원	60만원	40만원	22만원
설상	알파인 스키	13만~16만원	6만~8만원		
	바이애슬론	10만원	2만원		
	크로스컨트리 스키	7만원	2만원		
	프리스타일 스키	12만~18만원	6만~8만원		
	노르딕 복합	10만원	2만원		
슬라이딩	스키점프	12만~20만원	6만~10만원		
	스노보드	12만~18만원	6만~8만원		
	스켈레톤	7만~10만원	2만~4만원		
	루지	4만~15만원			
	봅슬레이	55만~80만원	35만~50만원	15만~22만원	
빙상	아이스하키	6만~90만원	4만~60만원	2만~30만원	
	쇼트트랙	55만원	35만원	15만원	
	스피드 스케이팅	25만원	15만원		
	스피드 스케이팅				



자료 / 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



교통편

KTX | KTX가 기존 무궁화호로 6시간, 자동차로 3시간 걸리던 서울역~강릉역 구간을 114분 만에 연결한다. 청량리역에서 출발하면 86분 걸린다. 서울역에서 출발한 KTX는 청량리, 상봉, 양평, 만종, 횡성, 둔내, 평창, 진부를 거쳐 강릉에 도착한다. 최고속도는 250km다. 올림픽이 열리는 2월 한 달간 편도 기준 51회, 패럴림픽 기간(3월 1~22일) 주중 22회, 주말 30회 운행한다. 해외방문객 출·도착이 집중되는 2월 1일과 9일, 25~28일에는 하루 총 8회 인천공항에서 진부(오대산)역까지 노선 운행한다. 대회 이후에는 주중 18회, 주말 26회 다닌다. 운임은 인천공항~강릉 4만700원, 서울~강릉 2만7천600원, 청량리~강릉 2만6천원. KTX가 경원선(용산~청량리)과 중앙선(청량리~서원주) 구간을 일반열차와 함께 사용해 일반열차와 ITX, 새마을호 운행 일정이 조정된다. 프리스타일 스키와 스노보드 경기가 열리는 휘닉스스노경기장을 가려면 평창역에서, 스키점프나 바이애슬론·크로스컨트리 스키 썰매 종목 경기장을 가려면 진부역에서 하차하면 된다. 빙상경기가 열리는 강릉 올림픽파크는 강릉역에서 지척이다.

자동차 |

휘닉스스노경기장은 영동고속도로 강릉방면 면운IC, 알펜시아 올림픽파크는 대관령IC, 강릉올림픽파크는 강릉IC를 이용한다. 대회 기간 국도 6호선(둔내~간평)과 59호선(나전~진부), 지방도 456호선(월정~횡계)은 고속도로의 우회로 역할과 KTX역에서 경기장까지 이동하는 경로로 운용된다.

영호남 주민 위한 무료 셔틀버스 |

영호남 지역민을 위해 무료 셔틀버스가 매일 운행한다. 영남권에서는 경북 선산휴게소에서 평창을 경유해



강릉까지 운행하는 셔틀버스를 매일 4회 왕복 운행한다. 단 2월 설 연휴 기간에는 운행하지 않는다. 호남권 관중을 위해 충남 정안휴게소에서 하루 6회 셔틀버스를 운행한다. 평창올림픽 자원봉사자 약 2만1천 명을 위해서는 3월 20일까지 전국 고속·시외버스 전 노선에서 요금 2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한편 평창과 1시간 거리의 충북 제천시는 제천에서 숙박하고 올림픽 경기 티켓을 소지한 이들을 위해 제천~평창 간 무료 셔틀버스를 운영한다.

경기장 주변 교통 |

올림픽 기간에는 자가용으로 경기장이나 행사장까지 갈 수 없다. 자가용, 대중교통, KTX를 이용해 개최지에 도착하면 환승주차장에서 무료 셔틀버스를 타야 한다. 환승주차장은 진부역, 대관령, 봉평, 정선, 정선아라리공원, 북강릉, 강릉역, 서강릉 등에 있다. KTX역에서 경기장까지 운행 소요 시간은 평창역~휘닉스스노경기장 15분, 진부역~알펜시아 스포츠파크 또는 정선알파인경기장 18~25분, 강릉역~강릉 올림픽파크 7분, 강릉역~관동하키경기장 21분이다. 셔틀버스는 개회식 1일 전부터 폐회식 1일 후까지, 매일 첫 경기 3시간 전부터 마지막 경기 종료 2시간 후까지 운영된다.

숙박

12월 중순 현재 평창과 강릉의 올림픽 기간 숙박 예약 요금은 객실당 10만~70만원 수준이었다. 일반 모텔 요금은 연초 50만원대에서 10만~20만원대로 눈에 띄게 조정됐다. 원주, 속초, 동해 등 배후도시는 10만원 내외에 가격이 형성돼 있다. 강원도는 배후도시에서 숙박하는 이들을 위해 올림픽 기간(2월 9~25일) 원주권·속초권·동해권 등 3개 권역을 중심으로 경기장을 연결하는 무료 셔틀버스를 1일 36대, 총 99회 운영한다. 한국관광공사 웹사이트(korean.visitkorea.or.kr/kor/bz15/w_stay/w_stay_list.jsp)와 모바일 앱 '투어강원'을 이용해 강원도의 숙박시설 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 또 올림픽 특별 콜센터가 합리적인 가격으로 숙박 예약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콜센터에 숙박을 문의하면 3일 이내에 응답을 받을 수 있다. 올림픽 특별 콜센터에서는 한·영·중·일어로 안내한다. 바가지요금을 단속하기 위한 신고센터(콜센터 ☎ 1330, 강원도 ☎ 033-249-3186, 강릉 ☎ 033-660-3023, 평창 ☎ 033-330-2303)도 운영한다.

준비물

평창, 정선은 한겨울 체감온도가 영하 20도까지 떨어지는 곳이다. 개·폐회식은 물론 설상과 빙상 경기는 모두 야외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추위에 대비해야 한다. 두꺼운 외투를 입는 것은 물론 핫팩과 무릎담요, 핫팩 방지도 준비하는 것이 좋다. 자외선 차단용 선글라스를 반드시 휴대하고 피부를 보호해주는 선블록도 챙겨야 한다.

